

침묵의 언어를 찾아서

鄭玄宗詩集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침묵으로서의 말이 최상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詩가 예술의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가능한 한 말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침묵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침묵에 싸인 세계입니다.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은 그 침묵을 들을 수 있겠지요.”

오랫만에 시인의 시집을 펼치다 떠오른 말은, 문단의 말석에서 막 서른을 채우던 시인의 시에 대한 각오 어린 글이다. 이제 살아갈 시간보다 아마도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을 시인의 시집을 열면, 지난 순간들에 대해서 “나는 가끔 후회한다 / 그때 그일이 /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아쉬워하지만, 그러나 모든 순간은 다 꽃봉오리라고 힘주면서 시집을 시작한다.

한편의 시를 쓰기 위해 수없이 바라보던 대상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그 대상(자연)이 꿈을 꾸다고 부적처럼 믿었던 지난 사랑의 시간을 걸으며 어느덧 시인의 마음에는 생의 통찰이 스미고 있음을 보게 된다. “O은 처음이며 끝 / O은 인생의 초상 / ... / O은 사랑 / ... / 죽음의 정령 / ...”이라고 O을 통해서, 시작할 곳도 모르고 끝도 없으며 온데도 모르고 갈 곳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순례를 깊이있게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딱 막힌 도시의 시멘트벽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흙냄새 담긴 시골의 구멍뚫린 담으로 마르지 않은 자연과의 내밀한 교감을 확인하며, “숨쉬는 법을 가르치는 / 술잔 앞에서 / 비우면 취하는 / 뜻에 따라서” 마시는 술이, 젊은 날 불을 담고 흐르는 물의 향기를 맛볼 수는 없지만, “책 속의 밤보다

더 깊은 / 밤을 빈 방과 더불어” 가식적이고도 현학적인 기억의 짐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조세희가 오랜 침묵 속에서 소설 아닌 사진으로 보여주던(「침묵의 뿌리」) 가난한 印度의 모습을 시인은 시로써(「印度詩篇」) 보여준다. “석가모니는 저 가난을 구할 길 없어 / 스스로 헐벗었다 / ... / 저 가난을 어쩌나 어쩌나 하다가 / ... / 도무지 그걸 구할 길 없어 / 스스로...헐벗었다 / ... / 그리고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헐벗은 대상을 도울 길 없어 스스로 헐벗었다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며 시인은 시를 얻지만 그 시는 다시 대상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시인의 책임감이 들려온다.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의미와 무게를 느낄 순 없지만 무관심으로 그냥 스쳐가는 작은 대상의 존재를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시야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 신선한 의미로 다가온다.

지난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자유를 갈구한 시인의 소망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잃어버린 구름이 되어 어딘가로 떠가고 있다. 시인에게 있어 그것이 詩想의 원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잃어버린 구름이
하늘에 떠 있구나

—「내가 잃어버린 구름」 全文

李鍾旭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1.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관리부

잃어버린 자아의 새로운 인식

「카프문학운동연구」

최근들어 일제 식민치하의 문학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면서 그 실질적 문학운동을 주도했던 문학조직인 카프(KAPF)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월북작가에 대한 정부의 해금조치가 그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그 주된 연원은 민족문학사의 복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카프에 대한 연구활동을 단지 과거 집적물의 회생 정도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문학사가 그러하듯이 문학은 현실의 온갖 질곡을 헤치고 나온 인간의 실천적 산물이며, 문학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인간실천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가 한국근대사에 비극적 옷을 입힌 후, 오늘날까지 그 비극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보다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문학적 동향 속에서 일제 식민치하의 문학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인 「카프문학운동연구」(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편)의 상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아닐 수 없다.

70년대 이전의 관변적 민족문학론을 타기하고 민족현실의 실천적 문학운동으로서의 민족문학론을 주창하였던 임현영을 위시한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3년여의 연구활동 끝에 선보인 이 책은, 지난날 냉전이데올로기의 논리 속에서 편견과 왜곡으로 일관하였던 카프에 대한 시각과 몰가치적 실증주의 연구방법의 극복에서 출발하여, 카프문학운동이 지닌 역사성과 오늘날 민족문학운동에 대한 현재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카프는 1919년 창립된 코민테른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카프는 러시아·일본 등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운동과는 달리, 식민지적 특성과 한계를 지니면서도 단일조직운동으로는 세계 문학운동사상 가장 오랜 활동(1925~1935)을 전개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카프의 10여년에 걸친 활동과 성과를 민족해방운동의 입장에서 사실주의 미학에 입각하여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카프에 대한 새로운 해석—프롤레타리아 혁명문학운동으로서 카프의 일반성과 특수성, 조직노선에 있어서 영근사의 부각, 변혁운동의 주체세력 확보를 위한 대중화론, 농민문학 및 동반작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당파성을 견지하는 통일전선의 강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민족문학론은 사회모순의 변혁과제에 실천적으로 복무하여 왔다. 특히 80년대 들어 사회모순구조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인식이 대두되면서 민족문학론의 이론적 성과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문학론의 현재적 논의 선상에서 「카프문학운동연구」는 문학사 내부, 특히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카프문학운동이 지니는 위치와 그 사적의의에 대한 재인식과, 나아가 민족문학사의 올바른 정립, 그리고 현단계 민족문학운동의 자기성찰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오종환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보람아파트 102동 1101호

한 의학도의 정신적인 고뇌

AJ. 크로닌의 「성체」

「성체」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 카톨릭 작가인 크로닌 박사의 卅자서전적인 소설로서 따뜻한 인간미를 그린 작품이다.

얼마전 의사들이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위해 결행한 단체진료거부 행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했었다. 6·29이후 우리 사회에 밀어닥친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 조금 더 베풀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이 책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이 작품은 영국의 탄광지대에서부터 런던의 상류층까지 두루 묘사함으로써 묘순된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주인공인 젊은 의학도 안드레아 맨슨이 곳곳에 정의와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의과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맨슨이 드라이네피라는 탄광촌에서 의사생활의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이 소설은 시작된다. 거기에서 의학도로서의 순수한 정열로 병마 뿐 아니라, 주민들의 무지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그후 런던의 의학교로 진출하게 되는 그는 그 곳의 타락한 모습에 분노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 물욕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탐욕에 굴복하는 그의 모습은, 의사 역시 한낱 미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세속적인 부와 명성을 헌신짝처럼 버릴만한 용기가 자신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타락의 구렁텅이를 과감히 벗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의료인이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소설은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직업인들이 가져야 할 소명의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의사란 결코 사회의 특권계층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므로 남다른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모는 의사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서도 자신의 공을 끝끝내 내세우지 않는 맨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휴머

니즘 소설이며, 문학도이기 이전에 의학도였던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소설이며, 한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뇌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인생소설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이기주의 풍조를 감안해볼 때, 이 소설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인공 안드레아 맨슨을 통해 나타난 인간상은 현대를 사는 지성인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김경숙

(주) 교보문고 총무부